

# 美 매체 “류현진 올시즌 고전할 것”

2020시즌 과대 평가된 선수 11명 중 한 명으로 꼽아  
AL 동부지구 강력한 공격력...류, 탈삼진 능력 낮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동지를 옮긴 류현진(33)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판타지리그 매체 판타지프로스는 10일(한국시간) 2020시즌 과대평가된 선수 11명을 꼽았다. 매체는 “과대평가되는 것이 패해야 할 선수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대보다 낮은 성적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라고 설명했다.

판타지프로스는 “2013년 빅리그 데뷔 후 평균자책점 2.98, 이닝 당 출루허용률(WHIP) 1.16을 기록한 류현진은 커리어

내내 매우 뛰어난 투수였다. 그럼에도 그의 2019시즌은 말도 안 되는 활약이었다”고 평가했다.

류현진은 2019년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고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를 마크했다.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이었다.

이와 같은 활약으로 류현진은 지난 겨울 토론토와 4년 총액 8000만달러에 계약했다. 2020시즌이 시작된다면 류현진은 토론토의 에이스로 활약하게 된다.

그러나 판타지프로스는 류현진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를 상대로 고전을 점치며 2019시즌 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체는 “류현진은 앞으로 대부분의 경기를 강력한 공격 라인업을 갖춘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팀들을 상대하게 된다. 또한 지역 일정은 따라 지난해 왼손 투수를 상대로 wOBA(가중출루율) 상위 13위에 든 6개 팀(뉴욕 양키스, 워싱턴 내셔널스, 뉴욕 메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보스턴 레드삭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등과도 맞대결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판타지프로스는 “류현진은 탈삼진 능력도 평균 이하이다. 이와 함께 힘든 일정까지 치러야 하게 됐다”며 류현진의 2020시즌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 양현종 “홍건희, 두산 선수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선수...두산서 좋은모습 보여주길”  
시즌 5승 달성 인터뷰에서 후배 향한 마음 먼저 드러내

대투수이자 팀 주장다운 면모가 물씬 풍겼다. 시즌 5승을 챙긴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이 트레이드로 떠나 보낸 후배 투수 홍건희(두산 베어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전했다.

양현종은 9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전에 선발등판해 5이닝 동안 5피안타 2볼넷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팀이 3-2로 승리하며 양현종은 시즌 5승을 따내 다승 부문 공동 선두에 올랐다.

이날 양현종은 고졸 투키이자 지난달 28

일 첫 맞대결에서 패했던 상대 소형준(KT)과 재대결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초반부터 KT 타선의 끈질긴 공략에 고전한 양현종은 투구수가 많아져 적은 실점에도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4회말 1점을 내줬을 뿐, 나머지 이닝을 실점 없이 책임졌다. 특히 3회말, 선두타자 배정대에게 3루타를 맞고도 후속타선을 전부 범타로 돌려세운 장면은 압권이었다.

경기 후 양현종은 “컨디션이 너무 좋았

던 탓인지 힘이 들어가 어려움을 겪었다. 포수(한)승택이가 리드를 잘해줬다. 주중 첫 경기에서 5이닝 밖에 던지지 못해 계투진에 미안하다. 그래도 다행히 (홍)상삼이, (전)상현이, (문)경찬이가 좋은 투구로 승리를 지켜줬다”고 고마움과 미안함이 담긴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현종은 특별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바로 이를 전 두산으로 트레이드된 우완투수 홍건희에 대한 마음을 전한 것.

양현종은 “(홍)건희는 열심히하는 선수고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두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두산 선수들이 (홍)건희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대투수다운 진심을 표했다.

## 보라스, 방출 마이너리거 연봉 지원 철회

선수노조 “에이전트 규정 위반할 수 있다” 경고



슈퍼 에이전트 스킵 보라스(사진)가 자신의 선수들 중 방출된 마이너리거들에 대한 급여 지원 계획을 철회했다. 선수노조의 반대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매체 디에슬레틱은 10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보라스에게 마이너리거에 대한 급여 지원 계획이 에이전트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에 보라스는 급여 지원 계획을 취소하고 준비하려 했던 금액을 미국 국민들의 투표 참여 독려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라스는 자신의 보유 선수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출된 마이너리거들에 대해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라스의 지원 계획에 대해 다른 에이전트들이 우려를 표했다. 선수노조의 에이전트 규정에는 “1년 중 어떤 시기에도 선수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선물, 현금 등 5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에이전트들이 유망주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라스는 이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지만 이번 급여 지원 계획이 자신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수노조 역시 보라스의 의도가 마이너리거를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봤기에 벌금 또는 제재를 내리지는 않을 계획이다. 나아가 선수노조는 방출된 마이너리거들을 돕기 위한 방법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 EPL 18일 재개...손흥민, 20일 맨유전 출격

노리치와 연습경기  
실전감각 끌어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재개를 앞두고 있다. 토트넘의 손흥민(28)은 노리치시티와의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린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첼시와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등 일부 구단들이 이번 주 연습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중단된 EPL은 오는 18일 아스톤 빌라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재개한다. 지난달부터 선수들은 개인훈련을 시작으로 이후 소그룹 훈련, 팀 훈련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각 팀마다 11대11 자체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재개를 약 1주일 앞두고 각 팀들은 연습 경기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간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오는 20일 맞대결을 펼치는 맨유와 토트넘도 이번 주 각각 연습 경기 일정을 잡았다.

토트넘은 EPL의 최하위인 노리치와 연습경기를 한다. 토트넘은 앞서 노리치와 리그 2경기를 모두 소화, 올 시즌 더 이상 맞붙을 일이 없기에 연습 경기 가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연습 경기지만 노리치전은 손흥민이 실전 감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손흥민은 지난 2월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오른팔 골절 부상을 입은 뒤 수술을 받고 치료를 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시즌이 중단되면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등 오랜 시간 경기장을 떠나 있었다.

노리치는 손흥민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이다. 손흥민은 지난 1월 노리치와의 홈 경기에서 넣은 결승골을 시작으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까지 5경기 연속 골



토트넘에서 훈련 중인 손흥민. (토트넘 인스타그램 캡처)

을 기록했다.

토트넘과 맞붙는 맨유는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2위를 마크 중인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 경기한다. 앞서 맨유는 10일 스토크시티(2부리그)와 연습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상대 팀 감독 마이클 오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취소됐다.

한편 EPL 3위를 마크 중인 레스터 시티는 EPL 19위인 아스톤 빌라와 연습 경기를 진행한다. 번리와 웨스트햄은 각각 챔피언십에 속한 위건과 퀸즈파크레인전스(QPR)와 연습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 PGA 투어 재개...임성재 상승세 이어갈까

오늘 찰스 슈와브 챌린지 개막...세계랭킹 톱20명중 16명 출전

임성재(22·CJ대한통문)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총상금 750만달러)를 통해 다시 질주를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PGA투어가 11일부터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CC에서 열리는 찰스 슈와브 챌린지로 시즌이 재개된다.

2019-20 PGA투어 시즌은 지난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 이후 코로나19로 전격 중단됐다. PGA투어 대회가 열리는 것은 약 3개월 만이다.

지난 시즌 신인왕에 등극했던 임성재는 2019-20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3월 초 혼다 클래식에서 생애 첫 PGA투어 우승을 달성했고 시즌 초반이지만 페덱스컵 랭킹 1위에도 등극했다.

이번 시즌 총 14개 대회에 출전한 가운데 우승을 포함해 톱10에 5번 이름을 올렸다. 상금도 현재까지 총 386만2168달러(약 46억3000만원)로 2위인 평균타수도 69.623타로 10위다.

투어가 중단되기 직전에 참가했던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도 단독 3위를

마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투어가 중단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임성재는 휴식기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평소 루틴대로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에서 코치가 합류해 스윙을 체크했고 코스에서 라운드하며 꾸준히 실전 감각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실제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솔레어)은 약 7개월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롯데 칸타타 오픈에 출전하기도 했지만 공동 45위에 그쳤다.

임성재는 찰스 슈와브 챌린지를 앞두고 미국 골프채널을 통해 “윤이 좋게도 내가 머물던 지역의 골프장은 문을 닫지 않았다. 투어가 중단된 동안 쇼트 게임을 비롯해 경기력 전반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려 노력했다.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임성재는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케이스 마셜(미국), 딜런 프리델리(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경기를 치른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상위 20위 선수 중 무려 16명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LPGA 메이저 ‘에비앙 챔피언십’ 끝내 취소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 예정이던 ‘에비앙 챔피언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끝내 취소됐다.

LPGA투어는 9일(한국시간) “8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던 에비앙 챔피언십이 올해 개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을 오가는

여행의 제한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때문”이라며 “메이저 챔피언십 일정은 내년으로 옮겨졌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 대회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한 차례 조정,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계획 중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동 제한 문제 등이 생기기 전에 열리지 않게 됐다.